

- 주요 뉴스: IMF, 내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인플레이션 등이 경제성장을 저해
 - 미국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제약적인 통화정책 필요
 - 미국 뉴욕 연은 조사, 향후 1년간 가계 지출의 큰 폭 감소 예상
 - 영란은행 총재, 긴급 국채매입은 예정대로 10/14일에 종료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영란은행의 긴급 국채매입 종료 계획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7%], 달러화 강세[+0.2%], 금리 상승[+7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영국 국채시장의 불안 재개 가능성 등으로 매도 증가
유로 Stoxx600지수는 경기부진 우려 등으로 0.6%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영향
유로화가치는 0.1% 상승, 엔화는 0.1%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전망 등이 반영
독일은 내년 성장둔화 예상 등으로 4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430.6원, -4.6원) 0.3% 하락, 한국 CDS 상승

		10/11일	10/10일	전일대비			10/11일	10/1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588.8	3,612.4	-0.65%	국채 금리 10y	미국	3.95%	휴장	7bp
	유럽	387.95	390.12	-0.56%		독일	2.30%	2.34%	-4bp
	중국	2,979.8	2,974.1	0.19%		영국	4.44%	4.47%	-3bp
	일본	26,401	휴장	-2.64%		CDS 5y	한국	62bp	60bp
	한국	2,192.1	휴장	-1.83%	위험 지표	중국	113bp	108bp	5bp
	달러지수	113.33	113.14	0.17%		EMBI+	-	459	-
환율	유로화	0.9708	0.9702	0.06%		VIX	33.63	32.45	3.64%
	엔화	145.86	145.72	-0.10%		WTI유	89.35	91.13	-1.95%
	위안화	7.1687	7.1554	-0.19%	원자재	구리	346.2	343.1	0.92%
	원화	1,435.2	휴장	-1.59%		금	1,666.3	1,668.6	-0.1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IMF, 내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인플레이션 등이 경제성장을 저해

- 내년 글로벌 성장률이 2.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여 이전(2.9%) 보다 낮춰서 제시. 러-우 전쟁, 에너지 및 식품가격의 급등, 인플레이션과 통화당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내년 경제 여건이 매우 악화될 수 있다고 진단. 한편 금년 성장률 전망(3.2%)은 이전 예상을 그대로 유지
- 지역별로도 미국(금년:2.3%→1.6%, 내년:1.0%→1.0%), 유로존(2.6%→3.1%, 1.2%→0.5%), 중국(3.3%→3.2%, 4.6%→4.4%), 일본(1.7%→1.7%, 1.7%→1.6%) 등 금년 유로존 전망을 제외하면 주요국의 금년 및 내년 성장률 전망이 대부분 하향 조정
- 고린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주요 3대 경제(미국, 유로존, 중국) 모두 성장 둔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여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는 경기침체가 발생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 예상. 이들 3대 경제는 각각 금리인상, 에너지 가격 급등, 코로나 19 관련 봉쇄조치 및 부동산 불안 등이 저해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
- 전세계 물가상승률은 작년 4.7%에서 금년 8.8%로 상승하고,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보다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추정. 아울러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이 불필요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의 혼란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우려. 또한 미국 달러화의 강세가 신흥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
- 한편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통화긴축과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이 금융안정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 투자자들은 향후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지속되었던 위험자산 선호를 낮추고 있다고 지적. 특히 변동성 확대와 급격한 금융긴축은 기존에 존재하던 금융 취약성을 증폭시킨다고 부연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제약적인 통화정책 필요

- 메스터 총재는 금년 연속적으로 큰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했으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으며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발언. 금리인상은 내년 초까지 진행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제약적인 통화정책이 상당 기간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 미국 뉴욕 연은 조사, 향후 1년간 가계 지출의 큰 폭 감소 예상

- 응답자들은 앞으로 1년 동안 가계지출이 평균 6% 줄어든 것으로 전망. 한편 단기적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잠시 완화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 측면에서는 물가상승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

■ 골드만 삭스, '24년 Credit Suisse는 80억스위스프랑의 자본 부족에 직면

- Credit Suisse는 지속적으로 구조적인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매도' 의견을 제시. 한편 투자은행 부문 구조조정 관련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회사 측은 사상 최저 수준의 주가로 증자는 되도록 추진하지 않을 계획

■ 영란은행 총재, 긴급 국채매입은 예정대로 10/14일에 종료

- 베일리 총재는 긴급 국채매입프로그램을 당초 계획에 맞춰 이번 주말에 중단할 방침. 한편 시장안정을 위해 10/11일(화)부터 물가연동채권을 일일 최대 50억파운드 규모로 매입할 것이라고 발표

■ 금융안정위원회(FSB), 암호화폐 관련 글로벌 규제를 제안

-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같이) 별도의 자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이 외에 추가적인 관련 규제를 소개하면서 최근 암호화폐 가격 급락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

■ 러시아 외무장관, 서방 국가들과 대화 가능. 진지한 제안을 기대

- 서방측과 대화를 원하지만 아직 진지한 제안을 받지는 못했다고 발언. 또한 향후 있을 G20회의에서 제안이 있다면 푸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다고 첨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0/1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9월 NFIB 경기낙관지수: 92.1, 8월(91.8), 예상치(-)
- 중국 9월 신규 은행대출(조위안): 2.47, 8월(1.25), 예상치(1.8)

■ 주요 경제 이벤트(10/12 현지시각 기준)

- FOMC 의사록, 연준 보우만 이사 및 ECB 라가르드 총재 강연, 미국 9월 생산지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내년 세계경제, 악재 중첩 시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 - 블룸버그

(What If Everything Goes Wrong at the Same Time)

- Bloomberg Economics의 내년 세계경제 기본 성장률 전망은 2.4%이나 유럽 에너지 위기 심화, 미국의 경기침체 조기 도래, 중국 봉쇄 강화 및 부동산 시장 급랭, 달러화 강세의 신흥국 금융 스트레스 심화 등이 중첩되면 -0.5% 예상
- 미국은 노동시장의 견고함과 가계 구매력을 기반으로 내년 0.7%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주택시장의 급격한 조정, 연준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진입, 유럽 경기침체 심화 및 중국 경제 악화 등 대외경제 악화의 전이효과까지 가세 시 -1.8% 성장 가능
- 중국의 내년 성장률 기본 전망치는 5.7%이나 봉쇄 조치가 확대되고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 2.1% 성장에 그칠 수 있으며, 유럽은 기본 전망치가 -0.1%이나 강추위와 심각한 정책 실패까지 가세할 경우 -4.1% 성장할 것으로 추정

■ 대만 반도체 산업, 중국의 위협에 직면 - WSJ

(China's Threat to Taiwan Semiconductors)

- 중국 20차 당대회에서 확실시되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은 대만 합병을 위한 중대한 시금석. 대만 합병 시 주석의 지위를 제고하고 중국 내부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릴 수 있어 '24년 5월과 '25년 1월 예정된 대만 및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합병을 서두를 소지
- 중국의 대만 합병은 미국에도 큰 위협. BCG와 미국반도체산업협회는 1년간 TSMC 반도체 생산 중단 시 전자기기 생산업체 수입 4,900억달러 감소 예상. 시장은 대만 관련 위협에 주목하지 않지만,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

■ 글로벌 채권시장, 금리 동조화에 따른 투자자 위험 확대를 경계할 필요 - Reuters

(Global bonds move in lockstep, ramping up investors' risk)

-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정책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채권 시장 간 동조화 경향이 심화. 9월말 영국 정부의 감세안 발표에 따른 영국 국채 금리 급등 시 미국 금리도 높아졌다가 영란은행의 국채매입과 정부의 감세안 철회로 양국의 금리가 동반 급락했던 것이 글로벌 금리 동조화를 입증하는 주요 사례
- MSCI는 주요국 채권시장 간 상관관계가 높아졌으며 이러한 상호의존성이 상당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위험이 내재한다고 지적. 이와 같은 환경에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의 성과는 저조하며,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 증가

■ ECB, 경기침체 우려 확대로 큰 폭의 금리인상이 어려울 소지 - 블룸버그

(ECB Window for Big Rate Hikes Narrows With Recession Nearing)

- 시장에서는 ECB가 10월 회의에서 0.75%p 인상예 나설 것으로 관측. ECB 내 매파적 인사들은 고물가와 동절기 에너지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역내 경제의 어려움은 증폭되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강조
- 그러나 아직까지 금리인상이 경기악화의 동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이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질수록 금리인상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 경기침체가 현실화 된다면 큰 폭의 인상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Bank J Safra Sarasin의 Karsten Junius)

■ 중국 경제의 미국 경제 추월 가능 여부, 장·단기 개혁이 관건 - Financial Times

(China's Shot at Overtaking the US Economy Is at Stake in Xi's Next Term)

-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정책선택이 중요. 현재 중국 경제는 제로 코로나 정책, 낮은 출산율 및 부동산 위기에 따른 투자 감소 등으로 5% 성장률 달성은 기대난. 이와 같은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30년 중반까지 미국 경제를 따라잡을 가능성은 희박'
- 이에 당국은 차세대 백신 도입으로 경제활동 재개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 등 단기적 성장정책이 필요. 또한 은퇴연령 상향조정, 보육비 절감, 출산 장려 등을 통한 안정적 노동력 공급이 중요. 이에 더해 지속적인 제조업 및 교육 관련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장기적 성장을 위한 개혁도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

■ 미국 연준, 과도한 투자심리 회복을 제어할 필요 - 블룸버그

(This Market Is a Teenager Who Needs to Be Grounded)

■ 미국 고용지표, 통화정책 전환 신호보다 실물경제 여건 파악 용도가 우선 - WSJ

(No, Bad News Isn't Good News for Sto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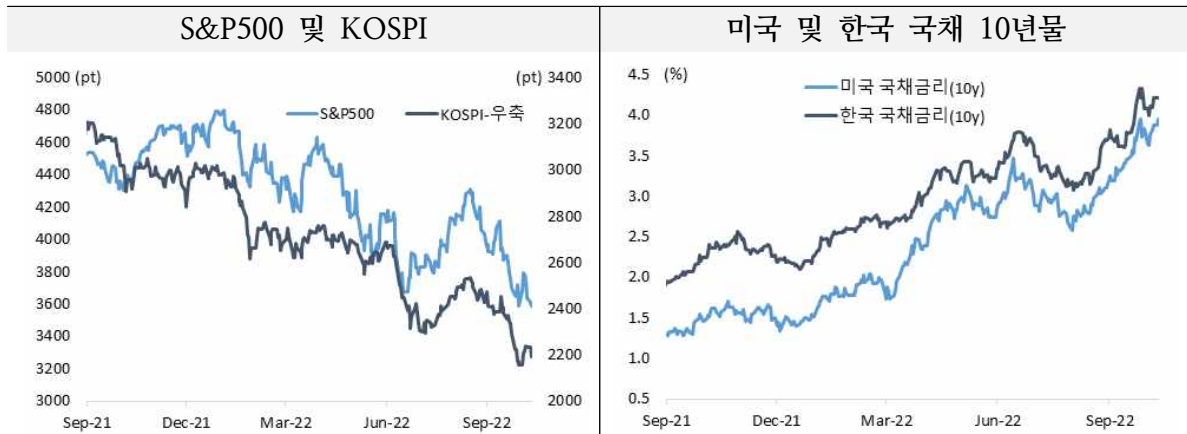
■ 국제 유가, 러시아 공급 축소와 중국의 수요회복 등으로 상승 압력 확대 - Financial Times

('Bullish forces are building' in oil markets)

■ 영국의 국채 변동성 확대, 주요국도 재정건전성에 유의해야함을 시사 - 블룸버그

(UK Turmoil Spawns the Return of Bond Vigilante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